



02



16



30



56

contents

이달의 메시지	02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사역의 모퉁이	08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교단일기	10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OPEN
미취학지구	12	미취학지구 겨울축제 '기도'에 초대합니다!
글로벌 지구촌	13	출발! 글로벌지구 몽골어 예배 ~
어린이지구	14	Bible Adventure Review
지구촌안테나	15	송구영신
청소년지구	16	하나님께로 U-TURN하기
필그림하우스	18	필그림에서의 아름다웠던 시간 OPEN
영어예배부	20	"Pursue Me(나를 따르라)."
청년지구	24	양과 목자
교육소감문	25	전도폭발 2단계를 마치며 OPEN
지구촌카페 1	26	3N3G와 통일비전 OPEN
구리지구촌채플	28	Begin Again
특집	30	선교지로 가는길
	31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32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34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목장이야기	36	지금도 일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가며
사회복지재단	38	함께 가야할 길
그림으로 보는 목상일기	40	향기 있는 사람
지구촌카페 2	44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 맛보기 OPEN
건강한 삶	45	알아두어야 할 성인 예방접종 OPEN
회복을 위한 나눔	48	우울감으로 부터의 회복
함께 읽는 독후감	50	'지혜 문학' 365일 두레박 목상의 샘 OPEN
천로역정 이야기	52	(9)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구촌 홈스쿨링	54	발표와 토론(Pres.&Talks) 클럽
메뉴하	56	인생은 아름다워, 노년을 멋지게
알림판	58	'지구촌 비전' 필진 및 '역사자료문서선교팀' 모집공고

OPEN 표시는 "열린 지면"으로서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알림판 58쪽을 참고하세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של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1-2)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소서.

-편집실

2 0 1 5

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 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Psalms 23: 1)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이란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 (이사야 53: 6)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새로운 문화와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편 23편은 빛나는 진주처럼 변쩍이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그토록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 닿으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편 23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나의 인생!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01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왕’ 또는 ‘창조주’, ‘주인’과 같이 강함을 상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양을 키우며 돌보는 목자였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을 떠올리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푸른 초장의 양들이 얼마나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기만 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은 자기 갈 길로만 갑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이 있는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후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사실 집을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리고 맙니다. 길을 잃어 버린 양은 사실 죽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 주지 않으면, 누군가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무능한 양입니다. 또한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도.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그래서 이런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 되며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이 됩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만족! 우리의 삶에 온전한 자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개척 교회 목사님이 매주마다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에 들어갈 말씀과 제목을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

런데 하루는 너무 바쁘고 손님들이 많아서 “시편 강해 23편 1절” 해놓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앞 부분만 적어서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당연히 뒷부분 말씀을 채울 줄 알았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 뒤가 뭐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바쁜 가운데 전화를 받았기에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주보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놀랐고 합니다. 주보를 보니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화가 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 이 제 목도 얼마나 놀라운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02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다시 보시면 “끝으로 이 짧은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14번이나 반복되는 1인칭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내가’, ‘나를’, ‘내게’, 14번이나 계속해서 이 1인칭 ‘I’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만큼 시편 23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가 됩니다.

삶 가운데 스스로 정말 느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됩니다.

필립 켈러라는 유명한 토론토의 사진사가 30마리의 양을 사서 8년 동안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책 앞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처음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도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 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는 양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삽니다. 값을 치르고 양을 삽니다. 필립 켈러는 자신의 몸으로 양을 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되신 예수님께서도 양과 같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십자가 상의 죽음으로,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필립 켈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아기 양 30마리를 사던 날, 양을 파는 사람이 나에게 예리하고 커다란 칼을 내어주며 말했다. ‘필립씨 이제 저 양들은 당신의 것이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양 치기들은 양의 등에 상처를 내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 둔다. 그렇게 해 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모든 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 나무로 된 받침 위에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 끝으로 깊이 금을 내어 표시를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았다. 그 후로부터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들은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의 표시를 하면,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 건강, 시간, 재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어느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향해 엄마가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줍니다. 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 다섯 글자를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기억하기 쉽도록 손을 펴서 다섯 손가락에 한 글자씩 대입하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발견한 엄마는 충격과 동시에 감사의 눈물을 터트립니다. 아들의 손바닥은 벌려져 있었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이 꼭 두 손으로 잡혀져 굽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my ... shepherd ...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가 알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손가락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나...

죽음 앞에서도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나 ...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2015년 양의 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만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진재혁 담임목사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는

영성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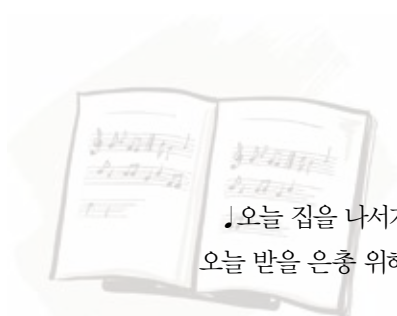
SPIRITUAL LEADERSHIP



2015년 3월 19일 - 4월 23일 (매주 목요일, 총 6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설우창 목사 | 분당 4지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



이 오래된 가스펠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는 이 메시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삶의 태도였다. 어머니는 종종 어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창아!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단다. 물론 엄마 같이 어른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너 같이 어린아이의 기도는 더 쉽게 응답 받는 거야. 네 생각에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엔 무관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렴.” 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이런 영적인 말씀을 자주 해 주셨다. 당시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많았는데 어머니의 이 교훈은 어린아이였던 내게 기도엔 좋은 마음과 호기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셨다. 그때 나는 내 죄를 회개하면서 더욱 더 큰 소리로 기도했었다. 웬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만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 무엇을 그렇게 큰소리로 회개했는지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르침과는 달리 내 기도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현실의 벽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언제부터인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 버렸다.

**“어머니의 이 교훈은 어린아이였던
내게 기도엔 좋은 마음과
호기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 대학생이던 어느 날 밤, 교회에 갔다가 불 켜진 청년부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을 열고 보니 4~5명의 청년들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는 매일 9시에, 몇 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던 모임이었다. 그런데 그날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그 모임을 인도하던 교회 형님이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 누군가 리더로 나서지 않으면 기도모임이 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면 심히 걱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이롱 신자였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받을 오늘의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다.”

그때 그 형님의 지혜로운 감언이설에 설득 당했고 매일 그 기도 모임을 사수하며 모임을 인도하는 열심 당원이 되고 말았다. (그 기도모임의 멤버 중 7명이 현재 선교사와 목회자로 사역 중이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연히 왔다가 엮여 버린 (?) 기도모임에서 대학생 시절 매일 1~2시간씩 반강제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 고질적인 병도 고침을 받았으며, 기도를 통해 연약한 성품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족하는 마음’이었다. 기도는 여호와께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었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억울해도 만족하고,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거친 기도의 자리에서 익히게 된 것이다.

지구촌교회에 부임한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은 기도였다. 더욱이 몇 년 전 전부터 섬기게 된 중보기도팀과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했고 지구 성도들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했다.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도전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기도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 버리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런 성도의 뒷모습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기도를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과감하게 기도를 강조하고 권면하고 가르친다. 기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애써 그런 기도의 부작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권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받을 오늘의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다.

요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나의 결심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도 새벽마다 막내아들을 위해 주님께 아뢰시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15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받을 은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지구촌**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임지영 성도 | 수지 10지구 평강목장



첫째 윤서를 낳고 복직해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그 이듬해에 2학년 담임을 맡자마자 임신을 해서 둘째 다현이를 가진 지 5개월 정도 되는 어느날이었습니다.



담임을 했던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상담실을 빌려 한 시간 동안 평범한 근황을 얘기하던 그 여학생은 끝나는 종이 울려 가보려고 일어나는 저를 붙들고 그제서야 어렵게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 학교 근처에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하시고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 지셔야했던 엄마가 일하러 나가신 동안 늘 집에 혼자 있던 그 아이는 남자친구와 집에서 단둘이 놀다가 임신하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임신 2-3개월쯤 되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검사를 해 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임신 35주였고 그 다음주부터는 출산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많이 불러오고 태동도 느껴졌을 텐데도 이혼으로 힘들어하시는 엄마께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 배를 복대로 동여매고 숨겨 왔던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일단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말씀들을 드리고 여학생을 미혼모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곧 출산을 했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마음 아프게도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률이 매우 낮은 대한민국의 Next Generation인 청소년들에게로 파송해 주신 것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풍조, 문화라고 생각해 버리기에는 10대들의 무분별한 성문화가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낳을 소중한 내 아이의 집을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10대의 낙태와 사산, 출산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 16)”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사랑에서 출발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기 위해 명령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스런 대한민국의 Next Generation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가치관 정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 여학생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상담심리교육 대학원에 입학하여 2013년 8월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촌교회에 온 후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내적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달부터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제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전도폭발 훈련을 수료하도록 이끄신줄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아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전할 말을 주실줄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 26)”

나를 부르셔서 학교라는 좋은 추수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영혼구령의 역사에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가는 학교마다 제가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 백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나를 그 가슴 떨리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치유 받은 치유자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사 30: 26)”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늘 주시리 **지구촌**

미취학지구 겨울축제 '기도'에 초대합니다!

김주희 전도사 | 미취학지구

"로드 할아버지~ 로드 할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맺을게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충성!"

2013년 미취학지구에서는 "사과 농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겨울축제가 있었습니다. 사과농장에서 로드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가꾸는 방법들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취학지구에서는 '기도'라는 주제로 겨울축제가 진행됩니다.

"엄마! 기도가 뭐예요?"

"아빠! 기도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혹시 이러한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취학어린이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분당성전 8층 본당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5년 미취학지구 겨울축제가 진행됩니다.

찬양 목자님들과 함께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신나게 찬양하고, 궁금증이 많은 메이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벌어지는 좌충! 우돌! 사건들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정의, 기도의 자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미취학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진재혁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취학지구에서는 자신의 기도제목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저금통"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톨, 두 톨 동전을 모아 전달하는 감격의 시간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취학지구 겨울축제는 엄마, 아빠 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미취학지구 겨울축제를 통해서 미취학 어린이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어린이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취학지구 겨울축제의 풍성한 축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모두 겨울축제로 오세요 **지구촌**



출발! 글로벌지구 몽골어 예배~

주한규 집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글로벌 지구 다문화 예배에서 지난 1월 4일 몽골어 예배가 독립되었습니다. 다문화 예배는 평소처럼 MD 플라자 8층의 글로리아 홀에서 주일 한 시에 드려 지는데 이 예배에는 몽골인들을 제외한 다문화인들과 내국인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영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통역되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됩니다. 몽골 지체들은 그 시간에 셀모임을 갖고 있다가 2시부터 몽골어 찬양을 시작으로 독립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김홍경 전도사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하시고 몽골인 목자가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현재 이 몽골어 예배에는 약 30명의 몽골인 학생, 근로자, 주부 또 귀화국민 등이 참석하고 있는데 당진이나 하남 등 멀리에서도 매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 될 정도로 몽골지체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 중 일부는 11시부터 진행되는 성경공부에도 참석하고, 12시부터는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찬양연습을 하거나 한글학교 수

업에 참여하여 내국인 봉사자 교사들에게 한국어 1대 1 교육을 받습니다. 몽골어 예배가 끝나는 3시에는 모든 다문화인들과 내국인 봉사자가 함께 간식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다문화예배부에는 현재 몽골인 지체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베트남 출신과 인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출신 등의 지체들과 30여명의 내국인 봉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다문화 멜팅팟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문화예배부에는 부설 한글학교가 있어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주 교육, 이미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몽골분이나 다른 다문화인을 알고 계시다면 다문화예배부를 소개해주시거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는 김홍경 전도사님 (010-5751-6003)에게 하시면 됩니다. **지구촌**



Bible Adventure Review

서한내 목사 | 어린이지구

전도사님의 인도로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에 전체 모여서 다시 전도사님 인도 하에 유년 1마을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마무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장별 활동과 전체 모임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더욱 통일성 있으면서도 목장별 구성원 간의 개인적 공과 활동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잘 이루어진 활동을 꼽자면

첫째, 전체 시상 활동으로 진행했던 모자이크 그림 (조각 그림)그리기 행사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성과물이 전체와 잘 어우러져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을 보고, 특히 활동주제,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대표 3인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 오병이 어의 그림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상시에 열심히 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받는 팀이 있는것이 아니라 저학년 특성상 모두 열심히 하는 참여도가 좋은 관계로 특별히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시상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목장별 활동과 전체 활동의 조화와 적절한 시간 배분입니다. 통일성 있게 전도사님의 인도하에 도입과 마무리 모두 사복음서에 대한 활동임을 친구들이 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과책-바이블 어드벤처 구성이 저학년이 활동하기에 좋게 구성되었습니다. 스티커의 질이 매우 좋아 떼고 붙이기 좋았습니다. 1. 복음의 시작 2.복음의 선포 3.복음의 완성 1-3과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목사님들이 공과활동하기 좋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활동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역량과 활동하려고 준비한 것들을 친구와 나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닌 적절한 양의 활동이 담긴 공과책이었습니다.

넷째, 손수 준비한 점심과 간식거리가 저학년 입맛에 맞게 잘 준비되어서 더욱 좋았고 공과를 진행한 장소에서 바로 밥을 받아 먹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고해 준 중학생 예비 목사님들 덕분에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친구들이 맛있게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해 아이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아 세상을 이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송구영신예배가 2014년 12월 31일(수) 9시, 11시에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졌습니다.



신년감사예배가 2015년 1월 1일(목) 각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영구제직 신년하례회가 1월 6(화) 저녁 7시에 분당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U-TURN하기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학원과 과외로 일상에 큰 변화 없이 지내는 청소년들. 성령께서는 그들을 또 한 번 불타오르게 하셨다. 16일~18일, 23일~25일에 고등, 중등 각 마을별로 진행된 겨울수련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u-turn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었다. 그 자리는 온풍기도, 난로도 필요없는 말 그대로 열기의 현장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분당 고등마을 2학년 3셀 황인승

이번 수련회는 여름수련회를 못 갔던 나에게 약간의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항상 그랬듯이 스스로없이 수련회에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련회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있었다. 수련회 날이 다가왔고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갈 때만해도 사실 특별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첫날 저녁집회 때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버지를 떠나 낭비한 시간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지내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데 나는 지금까지 사소한 Q.T와 말씀 묵상을 미루며 주님께로 가는 길을 돌아가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

둘째 날 오전 이단 특강을 듣게 되었다. 이단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이단이라는 조직의 이름만 들어왔지 세부적으로 그 이단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특강을 통해 이단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 세력들을 키워나가는지 알게 되었다. 또 내가 알던 이단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도 셀 수 없이 이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 한국교회와 이단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통해 주님께로



유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수련회 모든 집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번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수지 중등 1마을 12셀 홍채원

이번 수련회는 나의 첫 교회 수련회이기도 하고, 원래 안 가려고 했기에 기대도 안 했던 터라 정말 뜻 깊었다. 첫날은 수련회라는 것이 낯설었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재밌고, 즐거웠다. 찬양도 교회에서 하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 새롭고 신났고, 워터파크도 가서 즐거웠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밥이 정말 맛있었다는 것이다. 내 삶 중에 수련회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즐겁게 다녔다. 첫째 날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었던 것 같다.

둘째 날에는 방학하고 처음으로 빨리 일어났다. 그것도 내 힘으로 혼자 일어났다. 아침 식사 역시 맛있었다. 강당으로 가서 코스 게임을 했는데 신기했다. 그리고 팔찌를 받았는데 이걸로 복음을 설명한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꼭 설명을 해 봐야지 다짐을 하기도 했다. 코스 게임은 예상외로 재미 있었다.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게임도 알아가고 신선했다. 마지막에는 복음에 대해서 알 것도 같았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없애고 싶은 것을 적어서 캠프파이어 불에 태우러 나갔는데, 불을 붙이기 전 하늘을 올려다 보니 하늘에 춤춤히 박혀서 반짝거리는 별들이 너무 예뻐서.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오랜 만에 시골에 내려와 수도권에선 볼 수 없었던 전경을 보니 감정이 벅차올랐다. 정말 재미있는 수련회였다. **지구촌**

필그림에서의 아름다웠던 시간

박진아 자매 | A국 선교사

필그림하우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매번 맛있는 식사와 필그림을 아름답게 지키시는 너무 귀한 분들은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기쁨의 안식을 보내는데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게다가 말씀 한절 한절이, 읽는 책 한줄 한 줄이, 또 예배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찬양이 순례의 길에서 만난 한분 한분의 사랑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회복케 했습니다. 따뜻하게 건넌 커피 한 잔속에서, 또 권사님의 호주머니 깊은 곳에서 꺼내놓은 사탕 한주먹, 92세 어르신이 주신 껌 한 통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여겼던 것들,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곳 필그림에서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묵상합니다.

저는 oo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A국으로 파송된 박진아 자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양육하고 제자화 하여 충성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세워, 또다시 열방으로 보내는 비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서 남편을 만나 선교지로 온지 어언 1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저희 단체도 해외선교는 걸음마 수준의 단계였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선교의 전부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사역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년 동안 계속 땅 밟기 기도를 계속해 왔지요. 은혜 없이 힘들 가운데 드린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땅 밟기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며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침묵하며 2시간 가량 걸으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도를 하게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년이란 긴 시간동안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전 반전 휘슬이 울렸는데 그 휘슬소리도 듣지 못하고 달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꾸 공을 놓쳤습니다. 패스를 잘못하여 실수하기를 반복하니 감독님인 하나님

께서 저를 벤치에 쉬게 하십니다. 저에게 쉼과 안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에 주님은 뜻밖에 필그림하우스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먹이시고 참 쉼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사역의 크기가 점점 커가는 것이, 내 인격의 그릇이 커가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옳음이 절대 옳다는 착각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아 멀치게 지체를 깎아내리고 있는 제 자신과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의 힘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공활이 소멸한, 다분히 내 기준에서 내 옳음 일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지체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니 힘에 부치고 자주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최소한의 품위가 절실합니다. 절대 옳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나의 엄격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형편없고 못한 제 자아와 맞닥뜨리며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지 스스로를 경멸 하였습니다.

필그림하우스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저에게... 주님은..... 제가 원석이라고 하십니다.

다이아몬드인줄 알았겠지만 천만에 너는 원석이라 지금 세공중이라고.

천로역정의 코스와 책을 통해 나는 또 나의 낮은 모습과 대면해야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책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바로 나였기에 잠시 혼돈 속에 절망해야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 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가운데 더러운 나를 만드시고 가꾸어 가심을 말씀 속에서 위로와 참 힘을 얻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죄의 법이 땅의 것을 보게 하여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싸움을 벌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에게 내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다며 위로해주십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고 점차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사역이 일로써 다가오면서 영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필그림하우스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드러지는 예배는 좋은 설교 멋진 찬양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히 신뢰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갑니다. 다음 주면 삶의 현장인 A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 주신 이 귀한 길을 잘 감당하여 열방의 어미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간증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으로 나눔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극존**

“Pursue Me(나를 따르라).”

Jaclyn Blanchard(재클린 블랜차드) | 영어예배부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easily broken.”
For my husband, Josh, and I, this is true for our marriage. Three and a half years ago at our wedding, our friends prayed over us that our marriage would be a testimony of God’s love, wherever we go.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는 우리의 결혼생활에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삼 년 반 전, 우리의 결혼식에서, 친구들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결혼생활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About three years ago, just months after getting married, Josh and I felt God stirring in our heart to change our lifestyle. We prayed and asked God for his direction. And we felt led to apply to teach English in South Korea. So, we started taking the necessary steps to transition to South Korea. When we take steps of obedience, God rewards us with more of His presence, which is the greatest gift we could ever attain.

결혼 몇 개월 후 남편 Josh와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준비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임재,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Before coming to Korea, Josh and I prayed for some specific things: 1. To find a church community to be a part of, 2. For a community of believing friends to walk through this journey with, 3. To pay off our student loan debt so that we could enter full-time ministry, 4. Godly mentors who could spur us on toward our goal to work as full-time missionaries. God ended up answering all of these prayers beyond our wildest imagination!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과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살게 될 집 주변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과, 둘째로, 주님을 향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과, 셋째로,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서 우리 둘 모두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넷째는, 우리의 목표인 선교사가 되는 것에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 닮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A few months before coming, just on a whim, we looked up churches with English ministries in South Korea and the first church was Global Mission Church. We didn’t think much more about it until we arrived to Korea. Little did we know that we would end up moving to Migeum and living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at church!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임재,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몇 군데의 영어예배 부를 찾았었는데, 처음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지구촌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할 곳과 살 집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서 살 곳으로 집을 옮기고 난 후, 우리가 원했던 지구촌교회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God continued answering our prayers; we quickly got involved in the community of Global English Ministry (GEM). Through the Experiencing God study, God revealed that we must look and see where He is working and join him in that work. A few months after getting involved with GEM, Josh was asked to prayerfully consider serving as a worship leader. After prayer, he felt as though God was calling him to this position. I was not so sure. As I prayed, God changed my heart and gave me a fresh perspective on worship and serving him.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구촌교회 영어예배부에 다니기 시작했고, “Experiencing God”라는 훈련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찾아보고 인지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남편은 찬양팀에 리더로 섬겨 줄 것을, 그리고 저는 메인보컬을 맡아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저는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주님은 찬양과 예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 또한 그 요청을 받아들 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About a year ago, as Josh and I were praying about what to do next as our contract was coming to an end, we heard a message on the Great Commission, and Josh and I once again heard God's voice loud and clear and also felt his strong conviction in our hearts that our next step must be to pursue missionary work. So, we applied to the missions' agency,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For the past four years, God has been stirring our hearts to use our musical gifts for his glory by raising awareness and support for the serious issue of human trafficking that i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even in Korea! Slavery is not a thing of the past but is prevalent and thriving today.

일년 전쯤, 일하던 학원에서 일년간의 계약이 끝날 때쯤, 남편과 저는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 부부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

해,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선교사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으로 옮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선교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일깨워서 그러한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하는 데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만연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Though we have been accepted to work within the Alliance, at this time, we do not have a clear direction for where in the world we will be placed. So, as our contract in Korea is swiftly coming to an end, we find ourselves with nothing to “look forward to” for our next step. The Lord’s voice has been saying to me these days, “Do not pursue a cause, pursue Me.” Though, I say, “Lord, you tell us everywhere in the scriptures to ‘care for the widow, orphan and the oppressed!’ Can’t we take the next step in this way?” He keeps saying, “Pursue me.” The verse I have been comforted by recently is “Listen to advice and accept instruction; in the end you will be wise. Many are the plans of a man’s heart, but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Then one rests content, with a gladful heart.” Proverbs 19:20–23. And when I feel worry and doubt creeping in, I think of Matthew

6:21–35 and Philippians 4:6, which give clear instructions against worrying. Worrying does not add to the minutes of your life and it does not accomplish anything, therefore, “Worry not,” God says.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을 찾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원한 선교기관에 합격했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역에서 섬기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다가올수록 걱정하기 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님께서는 “일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억압된 자들을 돌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려 하니, 부디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응답은 “나를 따라야 한다.”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요즘 들어 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은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제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와 뜻만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입니다. (잠언 19: 20~23) 그리고 걱정과 의심이 저의 마음에 찾아들 때마다 마태복음 6: 21~35절과 빌립보서 4: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걱정 대신에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기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Therefore, as we step out into uncharted waters, we do so with prayerful hearts, seeking His Face more than seeking what is next. For being a child of God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Father and His work of salvation and nothing to do with us. So, we will take this next season to focus on Being and not on Doing. The world will look at us and say many things, but one thing remains: We are children of God.(Romans 8: 14)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우리가 2년여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선교지를 기다리기 위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와 그의 구원의 능력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은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됨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영원히 남겨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일 것입니다. **지구촌**



Joshua & Jaclyn Blanchard,
Photo Taken : August 2014



팀사역 오리엔테이션

교회 각 사역팀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2015 지구촌교회 팀 사역 오리엔테이션'이 1월 25일 주일 오후 5시 분당 성전 그레이스채플에서 열렸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인사에 이어 팀 영원칙과 예산집행 요령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구촌**

양과 목자

김종진C | 청년지구 작은천국마을 푸른열매목장



2014년은 저에게 색다른 한 해였습니다. 2012년 봄부터 2년간 함께 했던 생애 첫 신앙 공동체에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던 한 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봄, 영적 멘토와 같았던 첫 목자님이 진짜 한 아이의 아버

지가 되고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속해 있던 목장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차기 목자가 없었던 터라, 목원은 같은 마을의 다른 목장으로 나눠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목원은 마을 안의 다른 건강한 목장으로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와 헤어지고 저는 새로 정착한 목장에서 새로운 목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새로운 목장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새 친구이지만 새 친구는 아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 하는 마음을 먹기에는 저의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새 목장의 목자는 저를 길 잃은 어린 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써 목자의 품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이 들어오면 먼저 마음으로 품어주는 목자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참 많습니다.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목자 누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정누나. 저와의 첫 심방 때, 우울한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주시고, 누나의 예전 경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때의 긴 이야기를 통해 목장에 첫발을 잘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늦은 밤까지 심방을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같이 기도하던 날, 중심을 지키며 옳은 길로 이끌어주신 것.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며 권면하였을 때 피곤하다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먼저 본이 되어주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책 선물을 통해 알려주시고 갑자기 연락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만남과 긴 이야기를 통해 저를 이해해주시던 것 또한 감사드려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크게 좋은 일이라며 함께 기뻐해주신 것과 무엇보다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에 감사드려요. 6개월 동안 겪었던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모두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목자 누나와 함께 신앙이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목자님!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

전도폭발 2단계를 마치며

김현정 집사 | 전도폭발(화요반) 2단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한 전도폭발 2단계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조금 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는 참으로 귀한 영혼이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현장실습 때만이 아니라 찬양, 설교, 그룹모임, 교실수업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저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힘들어도 한 주 한 주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도폭발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지 않으며, 분노와 상처 미움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을 보려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값없이 주실 리가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관해서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복음에는 무관심하였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누군가를 찾는 분도 계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마음을 안은 채,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상처를 받은 후, 나가지 않고 있다는 분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지만, 복음을 집중해서 끝까지 듣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을 볼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제 모습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문도 조금씩이지만 저랑 친해지는 듯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순간도 제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앞으로도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동안 헌신해주신 훈련자님 그룹장님 두 분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지구촌

3N3G와 통일비전

박흥렬 팀장 | 통일선교팀

지난 해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3N3G 열풍이 거셉니다. 반공 제일주의 시절에 유행했던 말처럼 3N3G 모르면 간첩이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교회 창립 당시에 주셨던 비전 -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꿈을 이제 사람의 헛수로 성년의 나이가 된 현시점에서 보다 구체화된 비전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열풍의 여파로 통일비전이란 말이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열렸던 통일비전 컨퍼런스,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통일비전 기도회, 11월의 비전박람회, 통일비전을 품고 발족한 통일선교팀, 통일비전 주일예배 등이 그 예입니다.

3N3G와 통일비전 - 어떤 관계인가요?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3N의 첫 번째 N이 통일을 함께 추구해야 할 상대방 - North Korea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N과 3G는 통일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근 30여 년 간 직업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한선교단(신설 통일선교팀의 전신)을 섬겨오면서 부족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해답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지구촌비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는 상처나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의 가장 깊고 큰 상처는 분단입니

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녘 동포들의 비참한 삶, 중국과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민들, 남한 내 2만 7천여 새터민들, 10만여 명의 고령 이산가족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휴전선 대치 현장 등이 그 증거입니다. 최근 인기몰이하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도 사실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소재로 펼쳐지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치유」의 핵심은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남북 통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N(North Korea)는 당연히 우리의 최대 관심 영역입니다. 영양 실조로 성장판이 멈추고 있는 북녘의 어린 자녀와 청소년들,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어린 자녀들 양육과 돌봄,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가는 북녘의 수많은 가정들 - 두 번째 N(Next Generation)과 세 번째 N(New Family)도 통일비전 일꾼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변화」 비전 속에서 통일비전이 지향하는 초점은 당연히 북녘 땅이며, 이는 곧 북한의 변화를 뜻합니다. 북한 변화 없이는 결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평화적인 통일도, 북한 동포들 영혼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군사독재체제를 3대에 걸쳐 지키고 있고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 체제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변화 중에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권력집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완전 폐쇄된 사회에서 통제된 삶을 살아온 북녘 동포들의 변화 또한 통일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나요? 그 정답은 바로 3G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 - G(Great Commission)를 따르는 일입니다. 통일비전을 품고 있는 통일선교 일꾼들은 「복음전파, 이웃사랑」을 「북한 복음화, 북한동포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위험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북한동포 사랑은 의외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통일선교 일꾼들이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도 이제 북한동포 -



특히 영유아, 임산부, 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약 3: 15~16).”

복음과 사랑으로 민족분단 치유와 북한 변화를 도모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경건한 리더(Godly leader)로 살아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탈북민 사역을 오랫동안 해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탈북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구촌교회가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통일비전 성취를 위해 열방의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Global Church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민족분단 치유와
북한 변화를 도모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경건한 리더(Godly leader)로
살아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민족치유 세상변화, 3N3G, 그리고 통일비전... 참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지구촌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본래 하나이었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네 손 안에(in your hand) 그 두 막대기 끝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하라.(겔 37: 17).”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in my hand) 하나가 될 것이다(겔 37: 19)” 할렐루야! **지구촌**

Begin Again

최종길 장로 | 구리지구총채플

구리시 수택동에 기도로 든든히 준비된 구리지구총교회는 200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준비된 만큼 뜨거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매 주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구리지구총교회는 지난 10년간 구리와 남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쓰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해 10월초 담임목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담임목사님의 부재 속에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경하기만 했던 청빙위원회 모임이 자주 열렸었고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몇 교인들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 제직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살림을 챙기며 고된 수고로 섬기셨던 권사님들,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위로하셨던 장로님들, 교육지구를 묵묵히 섬기셨던 교육목자님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빈자리를 석 달 동안 홀로 감당하셨던 부목사님, 이 모든 분들을 통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리지구총교회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코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비록 고통은 쓴 것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시기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힘들었던 시간 끝에 구리지구촌교회는 지난 해 12월 사무처리회를 통해 지구촌교회의 멀티사이트교회(구리지구촌채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의 인내의 시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잠시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첫 주일 드디어 지구촌교회에서 박길호 목사님이 담당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또한 그날부터 진재혁 담임목사님의 주일 영상설교를 통해 지구촌교회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길호 담당목사님의 새벽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우리 교회에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된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구리지구

촌채플의 성도들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갈 지구촌의 가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요청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지구촌교회의 동역교회로서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비전을 위해 동역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족이 되어 3N 3G의 비전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리지구촌채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분당성전과 수지성전과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진정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멀티사이트교회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애써 주신 지구촌교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2015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일꾼들이 있다.
낮선 언어와 이질적인 문화,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복음의 순례자, 지구촌교회의 선교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자. 형편에 따라 후원의 욕심도 내보자. 지구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레, 김사론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가슴 뭉클한 감동이 물려옵니다. 부르심을 듣기는 쉬워도, 결단하고 떠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특별히 저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갑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을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성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교회에서 교역자로 6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배움과 도전을 얻게 되었고, 아직도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저를 흠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온 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려 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은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동남아 V국에는 많은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 동남아 V국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훈련시켜, 복음 증거자로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상황적,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시켜 현지 선교사님과의 긴밀한 사역 교류를 통해 선교 동원의 인적, 영적 자원을 양성하는 전략적 선교 기지로서 두 날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교회에서의 사역 경험을 토대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실천적 설교 사역과 한인 디아스포라 10대들의 성경적 성장 훈련과 멘토링의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쓸모 있는 도구로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2. V국 지구촌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3. 디아스포라 한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훈련하도록
4.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나가도록
5. 가족들 모두 영육 강건함으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이혜세드 선교사 | 서남아 I국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게 된 것은 2011년 8월 지구촌 'MET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배 광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된 MET선교는 선교 목적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대학교 때 I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선배가 들려준 여행담으로 인해 신비의 나라 I국을 꼭 한번 가보겠다고 다짐 했었던 나에게 MET 단기선교는 I국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생각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굶주린 채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수많은 아이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나의 상황이 나를 혼란스럽게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면 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곳에 오게 된 것인가, 초콜릿 하나만이라도 1달러 하나만이라도 건내 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의 씨름을 하며 그렇게 첫째 날을 보내던 밤. 기도하던 중 마음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하나, 1달러 하나가 정말 그 아이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건 뭐라고 생각하니? 그들에게 잠깐 잠시의 배 채움이 아닌 영원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바로 예수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초콜릿도 돈도 아닌 복음이었음을 깨달으며 선교가 무엇인지도 왜 중보를 해야 할지 몰랐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중보가 무엇인지 왜 중보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I국 MET단기 선교는 더 이상 나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철저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 일하는 매 시간 매 순간 마다 내 생각은 철저히 부셔지고 그 자리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작고 좁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어진 은혜의 시간 속에서 땅 밟기를 하던 중 주님께서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심을 느끼며 나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내 존재의 이유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눈물 흘리며 깨달아지며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 내가 I국이라는 땅에 선교라는 목적으로 오게 된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음을 주님을 위함이였음을 그렇게 주님이 아파하는 그 땅에 중보자로 전도자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았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사 어둠이었던 나에게 주님의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은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를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초콜릿도 돈도 아닌

복음이었음을 깨달으며 선교가 무엇인지도

왜 중보를 해야 할지 몰랐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중보가 무엇인지 왜 중보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거하길 바랍니다. 내가 밟는 그 땅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빛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따를 이들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내 마음입니다. **지구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3: 20)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오스텔라 선교사 | 중앙아시아 K국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앙아시아 K국으로 2년간 단기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오스텔라입니다. 먼저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부족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실 때 그에 맞는 계획과 사명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때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비로소 그분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만을 고집해 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전하는 자로 한 평생 살겠다고 서원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XEE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였고, 주님과 교제가운데 계속해서 열방을 품게 하였고, 마침내 2014년 예배가운데 1이면 1대로 10이면 10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콜링 기도를 했고 주님의 뜻이라면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지구촌교회 파송 선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웠던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송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회개하며 다시 한 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작은 종의 기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제게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작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21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짚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을 깨뜨리고 부숴 주님을 담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2015년 제1회 정기제직회 및 사무총회

1월 25일 제1회 정기제직회 및 사무총회가 분당 성전 그레이스채플에서 열렸다. 많은 제직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재정 및 사업보고가 있었고, 2015년의 새로운 시역을 위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

지금도 일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은경 목사 | 분당 6지구 양지 3마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목자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따르릉~~ 전날 국내선교를 다녀와 비몽사몽 피곤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목자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지구 목사님의 한 마디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앞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전가요? 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한 대답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는 목사님의 한 마디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친정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구촌 교회에 일군이 정말 많이 부족한가 보구나. 너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목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내일부터 새벽예배 드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지구촌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가족, 새생명 교육만 겨우 수료했고 주일예배와 목장교회모임만 참석하고 있던 중이었다. 목자님의 권유로 난생 처음 다녀온 국내선교 때 목사님께 찍힌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목자가 될 자격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얼떨결에 목자



〈왼쪽 첫번째가 필자〉

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매순간 느꼈지만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섬김의 자리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치명적으로 내게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래서 내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사역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목장원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자 전도에 힘쓰기로 목장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vip들을 대상으로 전도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꽃꽂이, 요리, 리스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vip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목장교회모임에 나오는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조 자매님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 몇 번의 이벤트를 통해 목장교회 모임에 초대되어 목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조 자매의 얼굴을 보곤 살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내 억울함으로 인해 누구라도 싸우고 싶은 듯한... 화가 얼굴 가득 곧 폭발할 것 같이 상기되어있는 붉은 낮빛과 부정적이고 도전적인 말투에 당황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목자라는 섬김의 자리를 통해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을 나를 변하게 하셨다.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때 마다 하나님은 조 자매의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많은 상처와 원망으로 너무나 아파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목장교회에 나올 때마다 목장원들과 끌어안고 그 상처 하나 하나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

목장교회모임을 마칠 때마다 뭔가 아직 화가 안 풀린 듯 상기되어 돌아가는 자매님을 바라보며 다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감사하게도 열심히 참석해 주었다. 오랜 기간 점과 굿 등 무속신앙에 의지해오던 시대문화에 익숙해 있던 조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속신앙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면 오랫동안 의지해 오던 무속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렇게 목장교회모임 참석 횟수가 늘면서 조자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적개심 가득 부정적인 말투로 토를 달던 자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장교회모임만 참석하던 자매가 지구촌교회에 등록하고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수요일예배, 토요일어머니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매의 고백이다. 지금도 상황이 별로 변한 것은 없지만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원망과 미움으로 쌓인 화로 늘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건가요?”라며 기뻐하는 자매님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변해 있었다.

“목자님, 하나님께서 아들 대학진학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새벽예배 드리려구요. 기도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먼저 점을 보러 달려갔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는 자매의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되뇌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처음 내가 목자로 세워졌을 때 그땐 나보다 더 믿음도 좋고, 아이들도 커서 시간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하신 집사님들도 많은데 하필 “왜 내가?”라는 생각에 난 한 학기를 불평, 불만으로 보냈다. 그 후로도 오랜 시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목자가 된 것과 또 내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은 것이... 이제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목자라는 섬김의 자리를 통해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을 나를 변하게 하셨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목장 배가로 세 명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우리 목장... 목장의 많은 빈자리들을 또 어떤 vip들을 보내주셔서 예쁜 일군들로 변화시켜 채워주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레는 맘으로 기대해 본다. **지구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고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도 땀을 흘리는 사회복지 소명인의 현장이야기,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섬기고 있는 이정우 목사입니다. 2013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다가 2014년부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역을 옮기면서 현재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사회복지를 마음에 품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성장 과정 중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막내 동생과 강남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던 작은 아버님을 통해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기 보다는 더불어 사는 것을 희망하는 온화한 성격을 지닌 덕에 부모님께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어우러지는 일'에 대한 권유도 많이 하셨고, 지나온 길을 돌아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행복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되고 스스로도 그런 것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들을 돌아보고 지금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회복지'라는 확신이 들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접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Q 교회 사회복지를 선두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교회 사회복지에 대해 품고 계신 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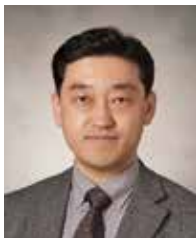
무엇인가요?

A. 1995년도에 있었던 종교인구조사 결과에서 기독교만 쇠퇴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더 섬기고 낮아지고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사회복지 목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과 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 10)"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함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일을 하기

함께 가야할 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고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도 땀을 흘리는 사회복지 소명인의 현장이야기,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상임이사로 섬기고 있는 이정우 목사입니다. 2013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다가 2014년부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역을 옮기면서 현재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사회복지를 마음에 품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성장 과정 중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막내 동생과 강남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던 작은 아버님을 통해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기 보다는 더불어 사는 것을 희망하는 온화한 성격을 지닌 덕에 부모님께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어우러지는 일'에 대한 권유도 많이 하셨고, 지나온 길을 돌아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행복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되고 스스로도 그런 것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들을 돌아보고 지금을 생각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회복지'라는 확신이 들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를 접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Q 교회 사회복지를 선두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교회 사회복지에 대해 품고 계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A. 1995년도에 있었던 종교인구조사 결과에서 기독교만 쇠퇴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더 섬기고 낮아지고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사회복지 목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과 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 10)”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함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하는 일은 복음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천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섬김의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은 어떤 마음과 계기로 설립하게 되셨나요?

A. 많은 교회들이 구제사역과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재단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혜 차원의 구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나눠보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듯이 지역사회를 섬김에 있어 함께 어우러지고 더불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고자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재단의 핵심가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4가지 영성 - 발견, 공휴, 돌봄, 책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공휴한 마음을 품으며, 이들의 아픔을 전심으로 돌보며 온전히 회복되고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사회복지사역과 동시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지구촌교회의 3N 3G 사업이 선포되었는데,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이 비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역을 진행하시나요?

A. 3N 3G 비전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의 정신이며 어떤 민족을 치유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찾아가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재화해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은 3N 3G 비전을 성취함에 있어 가장 최전방에 있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꿈꾸는 “Work & Dream”, 다문화 가



Q 마음을 모아주시는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과 기도제목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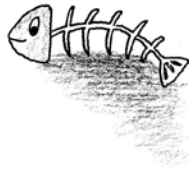
A.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구촌교회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세상에는 그분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 중 '전문적으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봉사의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으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관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섬김의 기쁨을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섬김으로 더 행복한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최전방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지휘하는 이정우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으신 백성,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행복이 배가되는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는 말씀이 마음을 울리게 되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지구촌교회 성도님 한분 한분을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지구촌**



제1영구제직 임시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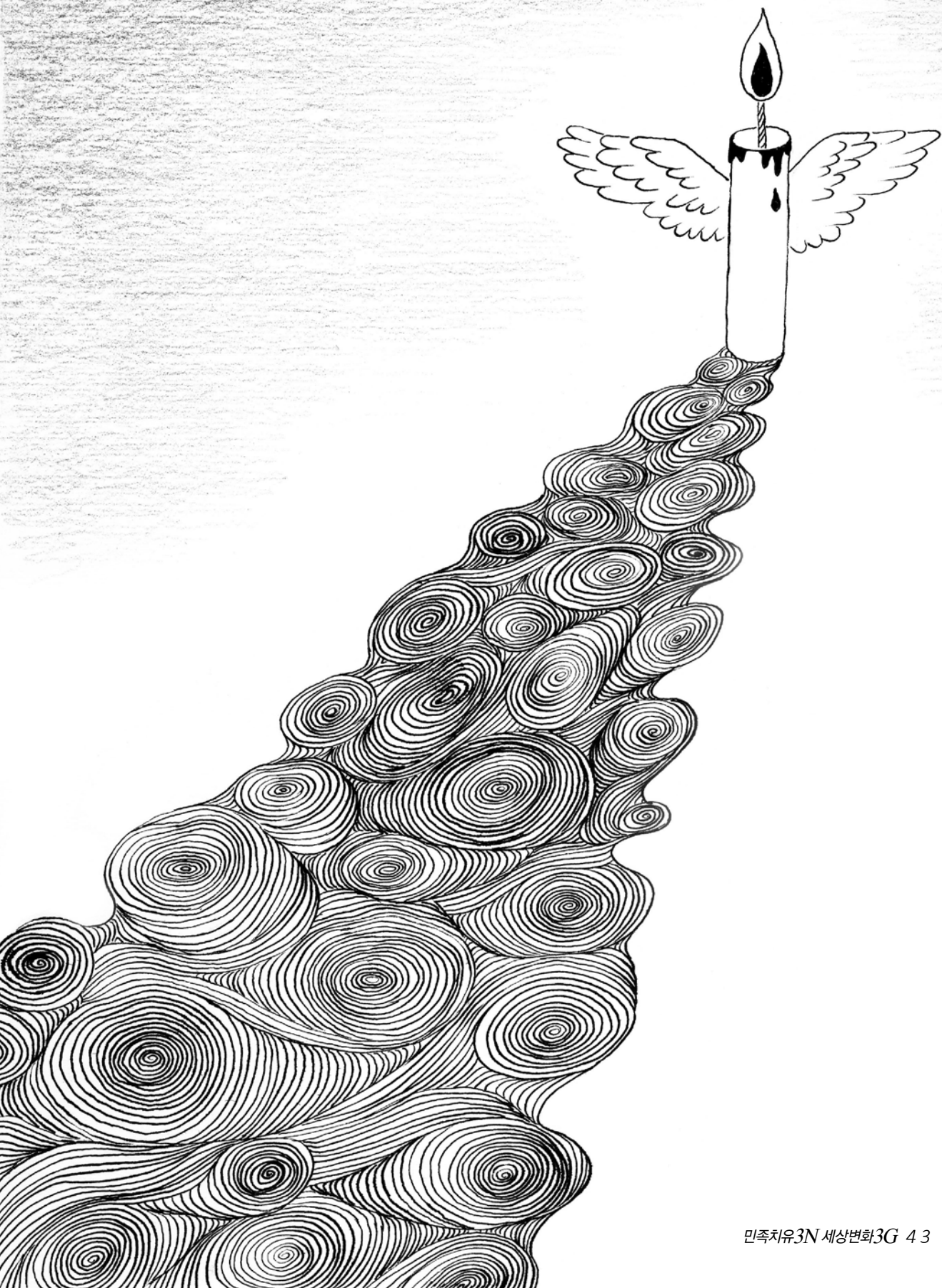
2015년 1월 25일 14:30 분당성전 그레이스 채플에서 제1영구제직 임시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임원 소개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회원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



향기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살펴본다
향초를 켜 종이엔 좋은 향기가 나고
생선을 켜 종이엔 비린내가 나지
혹여 내 주장만으로 비린내를 풍기며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본다
웁은 말과 행동 일지라도 너무 강하게
풍기면 역겨울수 있지
신선한 바람한 점 내게와
흩날려 주기를 바라며
좋은 향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새벽도 한 말씀 붙들어 뵙니다

글, 그림 | 손려원 성도 | 분당15지구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 맛보기

배운애 | 수지5지구 신봉4마을

할렐루야~~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찌렁찌렁 울리는 청현재이 선생님의 밝은 환영인사로 시작된 나의 캘리그래피 첫 수업...

작년 지구촌갤러리에 전시되었던 청현재이 선생님의 다양한 성경말씀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작품을 보며 왠지 모를 끌림과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 같다. 관심을 두고 주위 분들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엔 교회 서점에서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말씀액자나 악세사리를 선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지구촌 평생교육원 겨울학기에 새로 개설된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수업을 보고 왠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놀랍고 기뻐했다. 그래서 친한 집사님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폐강 문자에 너무 아쉽고 속해서 “어찌지?”하고 있는데, 잠시 후 인원이 미달 되었음에도 개강이 된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신청한 집사님과 너무 잘됐다고 기뻐했다.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 강의는 나와 집사님 그리고 평생교육원 간사님 이렇게 셋 뿐이었지만, 청현재이 선생님께서 이 캘리그래피 수업이 지구촌교회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 세명 밖에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세명을 300명처럼 생각하고 수업을 개강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이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붓으로 쓰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

지는 않았지만 폐강하지 않고 수업을 시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본의 아니게 개인수업처럼 받게 된 것도 솔직히 좋았다. 캘리그래피 글씨를 배우러 온 것일 뿐인데 생각지 않게 회복 프로그램을 덤으로 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청현재이 선생님께서는 함께 진행해주실 미모의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시켜주시고 수업에 임하셨다. 서로를 알아가는 자기소개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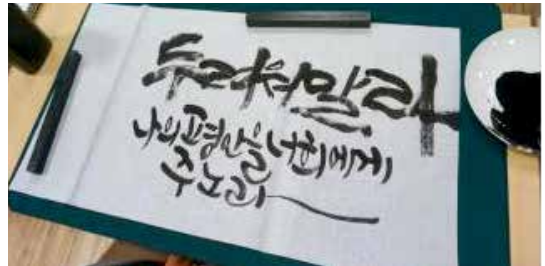
고 캘리그래피의 유래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캘리그래피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칼로스(아름다움)+그라페(글쓰기)의합성어이고 영어권에서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불리워지며 서예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사전적 의미로는 ‘아름답게 쓰다’이며,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감성적인 서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셨다. 현대사회에서는 광고, 영화포스터, 책표지, 브랜드로고, 제품 포장디자인, 폐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서예는 선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규범과 서법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 캘리그래피는 서예와 달리 서법에 구애받지 않고 감성적으로 자유롭게 선과 비주어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며 다양한 도구와 재료로 가장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글자라고 한다.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붓에 실어 표현하게 되면 붓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글자로 옮기며, 동시에 감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붓을 들면 정신이 집중하게 되고 집

중은 곧 인간의 감정을 안정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힐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청현재 이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책자에서 발췌)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이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시작하고 수업시간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치는 것이 다른 점 인 것 같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 선생님이지 아닌 하나님이지고 회복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신뢰가 갔고 편안했다. 매 수업시간마다 항상 기본적인 선 굵기를 연습하고 과제로 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써보고 집에서 연습하게 하신다. 어디서나 기초가 중요하다. 공부도 믿음생활도 그러하듯이... 한 주 한 주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막연하게 알던 나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나의 모습도 나임을 이제는 인정한다. 서로 나누고 위로 받으며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런 나를 만드신 존재가치가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베드로전서 5: 7)”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캘리그래피 힐링프로그램에서는 말과 글씨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내려놓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상처받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힐링을 통해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통로가 이 캘리그래피힐링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매 수업 후 소감을 나눌

때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중 제일 힘이 되었던 건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며 깊이 공감해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수강생들로 인해 나는 부끄럽지 않고 힘이 되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조용히 붓을 잡고 말씀을 쓸 때가 가장 집중도가 높고 평온한 시간이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붓으로 따라 쓸 때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이 담겨있다. 화난 마음에 쓴 글씨에는 화난 마음이 들어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감사한 느낌의 글씨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쓸 땐 경이로운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리고 다 쓴 글씨를 볼 때 마음은 정화가 되고 강 같은 평화가 온다... 어떤 새로운 일에 주저하고 두려워 한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보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알기에 나의 존재가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안에서 진정한 긍정적이고 자랑스런 모습을 찾아간다. 그것을 통해 주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한다. 지구촌

알아두어야 할 성인 예방접종

김영수C 안수집사 | 의료선교팀장, 메디파크내과 원장

몇 해 전 내과 개원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 개원 내과 의사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L·O·V·E 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L은 Life style change로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바른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고, O는 Once a year check up으



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V는 Vaccination으로 예방 접종을 의미하며 E는 Enjoy your life로 삶을 즐기라는 뜻인데 건전한 여가 선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의미한다.

현대 의학은 크게 예방 의학과 치료 의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캠페인도 대부분 예방 의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 검진도 가능한 초기에 일반 질병이나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이들 캠페인 중에서 예방 접종, 특히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예방접종은 가장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ness) 의료 대책이고 인류의 수명 연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여러 감염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이에 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7년에 대한 감염학회에서 성인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1993년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소아는 연간 500명인데 반하여 성인은 5만~7만 명에 달하여 질환별 사망자수와 백신의 효과로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의 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성인 예방접종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07년 지침과 비교하여 일부 변경되었다. 표에서 Tdap이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복합 백신, Td란 파상풍-백일해 복합백신을 뜻하는데 모든 성인이 접종 대상이고 특히 상처가 입기 쉬운 직업을 가진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2007년에 비하여 40세 이후는 6개월 동안 3회 접종 후 10년마다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말하며 50세 이상 성인은 모두 접종받아야 하며 50세 미만이라도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접종에 포함된다. A형간염은 30세 미만은 검사 없이 모두 접종받아야 하고 30세 이상은 항체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접종받는다. B형간염은 항체 검사 후 음성인 환자는 3회 접종하여야 하며 3회 접종 후 다시 항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접종 후에도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경우는 면역 반응이 약한 체질로서 다시 재접종해도 항체가 안 생길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12년 지침(미국 ACIP)

(나이)	19-29	30-39	40-49	50-64	>65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일해)	처음 1회 Tdap, 이후 10년마다 Td		처음 1회 Tdap, 1, 6개월 후 Td, 이후 10년마다 Td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매년 1회	
A형간염	2회	항체 검사 후 접종 2회		위험군에 대해 항체 검사 후 접종 2회	
B형간염	3회 접종 불확실할 때 항체 검사 후 접종			위험군에 대해 접종 불확실할 때 항체 검사 후 접종	
홍역-볼거리-풍진	위험군에 대해 최소 1회 접종				
수두	위험군에 대해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	여성 (9-26세)				
수막알균	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2회				
폐렴사슬알균	위험군에 대해 1회				1회
대상포진				1회	

홍역-볼거리-풍진 복합 백신과 수두 백신은 미국 지침은 40세 미만 모든 성인으로 권장하나 국내에서는 모든 성인이 권장 대상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로 9~26세의 여성에게 권장되며 특히 결혼 이전에 접종받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27~49세 여성 중에 고위험군인 경우는 접종이 가능하다.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수막알균은 주로 집단 생활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기숙사 입소나 군대 생활 및 해외 유학이 예정된 경우 반드시 접종받는 것이 좋다. 국내에도 2012년 9월부터 발매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폐렴사슬알균(폐렴구균)은 성인 폐렴의 주된 원인 세균으로 65세 이상 성인이 접종 대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고위험군은 접종이 필요하다. 백신은 프리베나와 뉴모 2가지가 있는데 201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권장사항은 프리베나 접종 후 1~6개월 이후 뉴모 접종을 추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신경에 침입하여

신경통을 일으킨 후 다발성 물집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연령층의 안면부 발생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50세 이상 연령이 접종 대상이면 과거 대상 포진을 앓은 경우도 접종 가능하다.

모든 백신은 생백신(살아 있는 균주로 만듦)과 사백신(균주에서 추출된 항원물질)으로 구분되는데 생백신 접종 경우에 보통 접종 후 한 달 이후에 다른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홍역-볼거리-풍진 복합 백신과 수두, 대상포진, 일본 뇌염 및 황열 백신이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백신이다. 생백신과 사백신을 동시에 접종 가능하며 사백신 끼리는 제한이 없이 다음날에도 바로 접종받을 수 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 18: 14)”고 성경은 말한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지켜 육체적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란다. **지구촌**

우울감으로 부터의 회복

하모니 | 회복사역팀

본 회복을 위한 나눔 시리즈는 지구촌교회 토요회복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매 주 간증한 내용을 정선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지구촌교회 토요회복축제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기초한 회복의 8대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상처, 습관, 장애로부터의 회복을 꾀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영적 치유와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학기 토요회복축제는 3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여 회복예배와 회복열린소그룹(목장)모임을 통해 회복 나눔을 갖게 됩니다.

우울감으로 부터 회복중인 하모니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는 1년마다 전학을 하여 친구를 사귀면 헤어져야 했기에 그 아픔을 덜기위해 친구에게 먼저 다가서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이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뭐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청소년시절 아버지께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많으셨기에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아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얼굴조차 보는 기회도 적었습니다. 어머니도 전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밑반찬과 옷가지를 가져다 주셔야 했기에 주말에는 여동생과 저는 둘이서 남겨져 지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탓에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 망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만 많고, 뭔가에 쫓기는 일이 생기면 집착에 사로잡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가 시켜놓고 간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아 못했다고, 그러면서 동생을 봐주는데 힘들었다고 어머니의 약점을 들먹이며 과장과 거짓까지 늘어놓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의 단적인 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심부름으로 뭘 하나 사가지고 오라하시며 분명히 없으면 그냥 오라했는데도 저는 그 지역을 다 뒤져서 사오고야 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찾아 다녔고 어디까지 가서 사왔다고 나의 노력을 은근히 자랑하고는 그에 대한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머니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냐고 핀잔을 주시면 겉으로는 표현을 안했지만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몰라주고~”라며 우울모드로 급속히 전환되는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청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에서는 어린시절과 청소년시절의 영향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



었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써 자기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 보려는 듯,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제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는 반대의사가 나오면 재검토가 아닌 집착과 고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정반대로 상사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에스맨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일 잘한다! 믿을 사람은 너 밖에 없다! 이번일은 다른 사람에게겐 못시키는 건데 너니까 상의한 것이라는 등등.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진심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저를 인정한다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시절 남에게 피해 안주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청소년 때는 집에서는 여동생 돌봐주며 나를 어머니 말 잘 듣는 아들로, 성인되어 직장에서는 사업추진 잘하고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직원이라고,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다고 스스로 자기최면을 걸어가며, 교만에 빠져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라오면서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분명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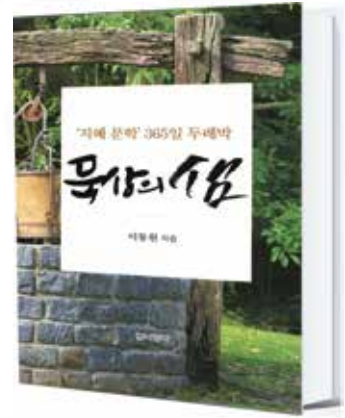
주변환경 때문에 나를 꼭꼭 닫아 놓은 영향으로 의사표현이 서툴렀고 혼자만의 망상과 집착으로 가득 찼고, 칭찬에 굶주려 분노와 우울 속에 빠졌고, 결국은 커서 내 생각에 굳게 사로 잡혀 내 방식, 내 판단에 반하는 것은 고집을 넘어서 교만으로 완전무장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회복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랜세월에 걸쳐 잃어버리고, 변형되어 쌓여지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된 것들인데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을 뿐 순간순간에 과거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슷한 여건이 발생되면 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해지고 분노하다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아직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울로부터 회복되어 그렇게도 바라던 진심으로 칭찬 받고 인정받는 그런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울에서부터 회복이라는 길로 인도해 주고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회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동역자로 함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촌**

'지혜 문학' 365일 두레박 묵상의 샘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허정식 집사 | 분당4지구 작은천국

오늘도 여전히 출근 시간에 쫓겨 직장생활을 정신없이 보내다 퇴근 후 하루를 마무리 할 찰나에 불현듯 생각 이 나 이동원 원로목사님의 신간 “묵상의 샘”의 해당날짜를 펼쳐 한 장 읽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관한 말씀을 재빨리 읽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조금씩 시편23편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니 결국엔 성경을 꺼내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 동안 가난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무엇에 쫓기듯 늘 긴장하고 살았나 봅니다. 2절, 3절... 처음 접하는 말씀도 아닌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뜨거웠는지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 뿐 만 아니라 오늘의 시편 23편은 삶에 여러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분의 약속에 대한 지식보다는 제 자신의 열심과 감격에 더 의지하는 비뚤어진 신앙생활, 회사와 가정, 교회에서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 없는 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고 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묵상은 끝나지 않는 기쁨이라는 말을 시편을 통해 또 다시 한 번 경험합니다.

“묵상의 샘”은 시가서에서 읊가를 제외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 즈음엔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할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기록된 또 다른 책 “묵상의 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는 은혜의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구촌**

독후감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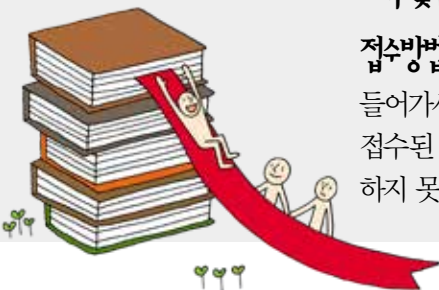
대상도서 이달의 추천도서 중 한 권

참가대상 지구촌교회 책 읽는 교인들

규격 및 분량 A4용지 1장(사진 포함)

접수기간 매월 둘째 주까지

접수방법 및 문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 Tag Cloud에 지구촌비전으로 들어가셔서 원고접수 게시판에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접수하시면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담당** 허정식 집사(hdremer2000@hanmail.net)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내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오픈 세미나

회복축제사역 안내

토요회복축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내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토요회복축제는 회복예배와 특성화된 회복열린소그룹을 통해 자신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8복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모든 유형의 상처와 습관, 그리고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회복 공동체 모임입니다

상반기 모임 안내 : 3월 7일-6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7:00 분당청전 그레이스 채플

회복오픈 세미나

강의 1. 2015년 2월 7일(토) 오후 5:00~6:30

강의 2. 2015년 2월 14일(토) 오후 5:00~6:30

강의 1. 트라우마(외상)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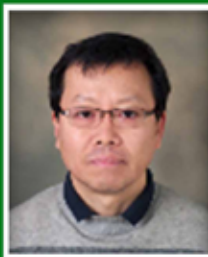


오경숙 박사
(피스메이커 상담연구소)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외상)로 생긴
고통과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복잡한 충동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서로도와 치유하며,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의 2. 중독과 회복



박순항 교수(대림대학교)
RAS(국제 공인 중독 치료 전문가)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크든
작든 모두가 중독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회복의 원리를 적용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명준 목사 (필그림하우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크리스천이 아볼루온과 전투에서 힘겹게 이기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외길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에 대하여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렘 2: 6)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주위에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뚝이 튀고 흥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처럼 크게 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큰 질병, 가족의 죽음,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와 구원의 감

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시 116: 3)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믿음이

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무질서의 파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고통당하며 좌절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욥 34: 21)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 쫓겨 다니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실 |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에서 신실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신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동행하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순례의 길에서 체험한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고



생을 한 반면, 신실은 ‘음탕’이란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음탕이라는 여자는 젊은 신실에게 온갖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신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과 같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요즘에는 음란한 것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가상의 공간에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협을 거부해야 하며, 그 어떤 마음의 공간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 크리스천과 신실은 순례의 길을 걷다가 ‘수다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수다쟁이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없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수다쟁이는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내리누르면서 자신을 높이며, 경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사도 요한도 심령에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말을 하는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일 4: 5)고 했습니다.

교회나 일터, 공동체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로 언어 때문이지요! 말로 상

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니라"(잠 25: 11)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격려가 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 19) 서로 간에 배려하고 긍정적인 선한 말은 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생활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지구촌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GHSA)의 “발표와 토론(Pres.&Talks) 클럽”

- 세상을 향한 기독교 절대 가치를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 훈련하는 클럽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GHSA)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여러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수요일에는 동아리 형식의 모임인 ‘수요 클럽’이 진행되는데요.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공동체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는 14-15세 홈스쿨러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발표와 토론(Pres.&Talks)’ 클럽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발표와 토론(Pres.&Talks)’ 클럽은 이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변증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홈스쿨러 엄마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연습하는 모임으로, 협력모임(CO-OP)에서 다져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발표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이었습니다. 수업은 발표 수업과 토론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14-15세 아이들이 다루기에 다소 철학적이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수업에서는 특별히 홈스쿨링 아이들의 성숙한 생각과 언변에서 때로는 기대 이상의 풍성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유신론 VS 무신론”,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안락사?” 등이었는데, 주제가 조금 난해한 감이 있지만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의 단면들을 조금씩 접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향한 더 깊은 통찰들을 이끌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고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발표와 토론 클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변증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제자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통의 도구인 “말”에 대하여 “말”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발췌

세상에는 말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살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갈립니다. 말의 재능을 가졌을 때, 그 말의 능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괴롭힌다거나, 싸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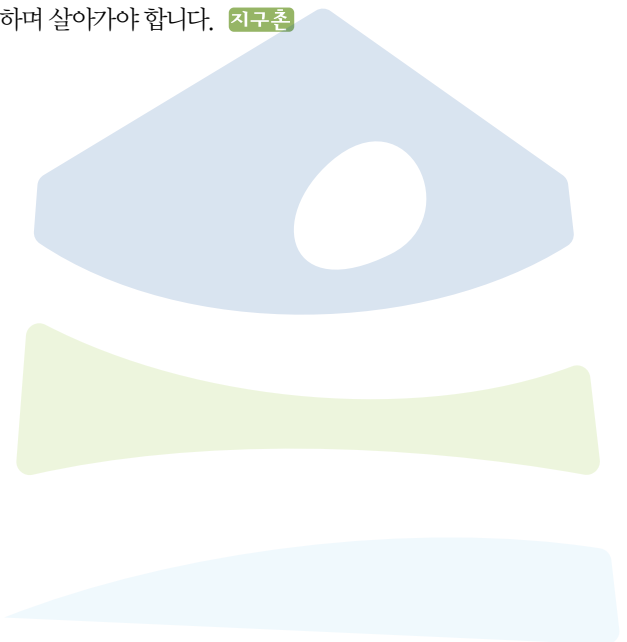


기술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행동과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말 몇 마디로 적을 물리친 고려 시대 서희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고귀하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부드럽게 사용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면 도리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은 사랑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뿔가리가 되어 버립니다. 천사의 말을 하거나 또 꿀을 바른 달콤한 말을 해도 그 말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서로에 대한 말에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구리나 뿔가리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을 그 역할대로 사용합니다. 지난 번 발표 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것을 만드신 이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울리는 뿔가리가 아닌 사랑을 담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구촌**





인생은 아름다워, 노년을 멋지게



1월의 어느 평일 오후,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탁구를 통해 멋진 노년을 즐기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힘찬 스매싱의 열기가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시설인 탁구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바닥은 마루로 깔려 있고 10대의 탁구대로 웬만한 전용 탁구클럽에 버금가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임회장으로 현재 탁구회 고문으로 섬기고 계신 어르신으로부터 이곳 탁구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여고시절에는 탁구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드민턴을 30년 정도 했었는데 다리에 무리가 와서 운동을 쉬다가, 8년 전 이곳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때부터 탁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연: 탁구회 전임 회장〉

현재 이곳 탁구클럽에 등록된 어르신 회원은 200명 정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의 분들이 탁구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탁구회 내의 최고령 회원 어르신의 연세를 여쭙어 보았더니 무려 92세.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후 준비해 간 탁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테이블 앞으로 나서니 모든 어르신들의 눈길은 일제히 기자에게로... ‘아니 노인복지관 탁구장에 웬 젊은이(?)가?’라는 의아한 표정들의 어르신들. 탁구를 치시는 어르신 중 가장 고수로 보이는 어르신과의 한 게임에 멋쟁이 할 아버지를 응원하는 수많은 할머니 팬(?)들의 눈길은 일제히 1번 탁구 테이블로 향하고 이후 계속된 몇 번의 게임들. 탁구장을 나서기 전 한 어르신의 요청으로 30분 정도 기본적인 탁구 원리와 함께 땀날 정도의 랠리를 해드리고 발걸을 돌리는데 주변에 계시던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언제 또 와~?”



탁구는 빠른 볼의 움직임으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유지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활탁구에서는 핸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승패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탁구와 함께 하는 노년. 늘 건강과 웃음을 선물해 주는 탁구가 있어 진정한 메누하를 갖고 계시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탁구회의 어르신들. 그냥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노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92세까지 쫓~. **지구촌**

— 라기석 기자

※메누하(Menuha)는 “쉽, 안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2015년 1학기(제 41기)

전도폭발훈련

모집기간 2월 1일(주일) - 15일(주일)까지

훈련기간 2월 말부터 약 14주간

훈련자격 새가족반을 이수하고 목장에 소속된 성도

개설내용

1. 수지 화요반 25명(오전 9:30-오후 2:30/현장전도 포함)
2. 수지 주일반 25명(오후 3:30-6:30/현장전도 별도)
3. 분당 주일반 25명(오후 3:30-6:30/현장전도 별도)
4. 분당 토요일반 25명(오전 9:30-12:30/현장전도 별도)
5. Xee 분당 목요반 25명(오전 9:40-12:30/현장전도 별도)
6. Xee 영어 토요일반 20명(오전 10:00-12:00/문의 031-710-5923)
7. 수지 금요시니어반 10명(오후 2:15-4:00/현장전도 별도)
8. 분당 금요시니어반 10명(오후 1:00-2:30/현장전도 별도)
9. 어린이 Kid's EE 10명(문의 031-710-9351)

모집인원 각반 1단계 선착순

신청장소 각 성전(수지/분당) 등록센터

문 의 국내전도부 | 031-710-9436



『지구촌 비전』 필진 및 『역사자료문서선교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교회가 발간하는 월간 『지구촌 비전』이 2015년부터 문서선교사역에 함께하실 필진을 찾습니다. 차례에 **OPEN** 으로 표기된 지면(열린지면)에 원고 작성이 가능한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해주시요. 적극 환영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집 부문〉

1. **OPEN** 열린 지면 집필진

의료전문인, 법조인, 문화 예술인, 시인, 만화가, 목자, 청년 등 기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집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2. 역사자료문서선교팀원

기사 작성, 원고 교정, 취재 가능한 성도

〈자격 요건 및 활동 내용〉

1. 지구촌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자로 성별, 나이, 학력 무관함.
2. **OPEN** 열린 지면 집필진은 본인의 재능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여 투고하면, 편집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지면에 반영함.
3. 역사자료문서선교팀에서 문서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매주 주일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지구촌선교센터(MD프라자) 705호로 오시면 『지구촌비전』 발간을 위한 기획회의 및 기사 작성, 원고 의뢰, 교정 등에 참여하게 됨.

〈문의처〉

팀장 연구흠 권사 (010-9343-3698)

편집장 정원종 안수집사 (010-3404-6752)

지구촌교회 역사자료문서선교팀 **지구촌**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구 분	수 지		분 당		수 지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1부 예배	06:15	본당(4층)	06:15	본당(8층)	목자모임(자매) 수10:00 (본당 4층)
2부 예배	08:00		08:00		
3부 예배	10:00		10:00		
4부 예배	12:00		12:00		
5부 예배	14:00		14:00		
6부 예배(Holy wave)	16:00		16:00		
7부 예배	18:00		18:00		
영어 장년			10: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채플(B1층)	목자모임 (형제, 부부) 토06:40 (그레이스채플)
영어 어린이			09:50	선교센터 글로벌리채플(8층)	
영어 청소년			11:00	선교센터 다니엘홀(7층)	
영어 청년예배			14: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채플(B1층)	
일본어 예배			14:00	선교센터 소피아채플(8층)	
중국어 예배			10:00	선교센터 소피아채플(8층)	
다문화 예배			13:00	선교센터 글로벌리채플(8층)	
아름 (어린이/청소년/장년)	12:00	202호	10시/12시	105호/106호	시니어지구예배 금10:00 (본당 4층)
영아촌 (0세-36개월)	10:00	110호	10:00	702호	
유아촌 (4세-5세)		111호		701호	
유치촌 (6세-7세)		208호		703호	
유년촌 (초1-초2)	10:00	201호	10:00	712호	
초등촌 (초3-초4)		203호		711호	
소년촌 (초5-초6)		207호		710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201호	14:00	710호	청년금요심야 금21:00 (그레이스채플)
중등마을 (중1-3)	10:00	202호(중1)	10:00	206호(중1)	
		310호(중2-3)		207호(중2-3)	
고등마을 (고1-3)		311호		203호	
연합마을 (중1-고3)	12:00	310호	12:00	203호	
수요예배	11:30/19:30	본당(4층)	11:30/20:10	본당(8층)	
새벽기도	05:00/06:00	그레이스채플/본당	05:00/06:00	102호 / 그레이스채플	
금요심야기도회	21:00	본당(4층)	21:00	본당(8층)	

구 분	경기대채플		GMN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시 간	장 소
1부 예배							08:00	비전채플(5층)
2부 예배							10:00	
3부 예배	10:00	텔레컨벤션센터	10:00	GMN채플(B1층)	9:15	피테스채플	12:00	
4부 예배	12:00	텔레컨벤션센터	12:00	GMN채플(B1층)	11:00	카리타스채플		
경기대 영어예배(KEM)	14:00	북지관 B205호						
구리 청소년 예배							10:00	비전채플(5층)
구리 어린이 예배							12:00	교육관(6층)
구리 미취학 예배							12:00	예람채플(6층)
구리 수요예배							19:30	비전채플(5층)
구리 새벽기도							05:30	비전채플(5층)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분당성전 4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구리지구촌채플 청소년은 장년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지구촌교회 시리즈 설교 QR코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시리즈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지성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 031-264-9191 팩스 | 031-270-8100



분당성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 031-710-9300 팩스 | 031-710-9400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 031-589-7601 팩스 |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 031-719-9191 팩스 |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총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 (수택동)
대표전화 | 031-564-9291 팩스 | 031-569-9291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인터넷	http://www.jiguchon.org http://www.c3tv.com
라디오	‘생명은 빛으로’ 목요일 오전 9:00~9:30 서울극동방송(FM106.9)
T V	「지구촌교회 시간」 CTS(CH65) 화요일 오전 5:30~6:00 SKY LIFE (CH414) 화요일 오전 5:30~6:00 이브로드 기념방송, 티브로드 홀딩스 수원방송 (CH53, 디지털 CH120) CGN 화요일 낮12:00 진재혁 담임목사 / 금요일 오전10:20 이동원 원로목사(영어자막) CBS (CH 용인112 / 분당511) 토요일 오전8:20~9:10, 일요일 새벽1:00~1:50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니이가타 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25-201-8122
호치민 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Q. 7, HCMC, Vietnam	84-8-2211-9951~2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zealand	64-27-414-2777

동역교회

광고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	031-212-2291
기흥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81	031-283-7991
동백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 삼성타워 2층	031-693-8291
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 2길 5 리더스플라자 9층	031-8003-8253
민들레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 11	031-203-2012
송파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40 3층	02-431-6458
위례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6길 15 2층	070-4634-3927
죽전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죽전로 49 시티빌딩 7층, 8층	031-896-7070

협력교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욕 지구촌교회	55A Forsythia lane, paramus, NJ 07652	201-266-8080
동안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202동 211-4호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밴쿠버 지구촌교회	8383-140 St. Surrey, B.C. Canada	604-588-3277
상파울로 지구촌교회	RUA HANNEMANN 149-PARI	(55-11)3312-0002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리조나 지구촌교회	536 E. Fillmore Street Tempe, Az 85281	480-425-0691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1401 Old 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770-495-5802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9800 Medlock Bridge Rd #7 Johns Creek, GA 30097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얼바인 지구촌교회	21 Calabria Irvine, CA 92620	714-673-1978
영진침례교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58번길 5	051-415-0831
워싱턴 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은혜 지구촌교회	8140 Gray Fox Blvd #A Columbia, SC 29223	803-466-7768
천안 지구촌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두정동, 퓨전리더스빌딩)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평택침례교회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56번길 21-3	031-654-4945
한빛 지구촌교회	3901 Fair Ridge Dr.Fairfax VA 22033	703-591-6400

원고접수 및 안내 |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 Tag Cloud에 지구촌비전으로 들어가셔서 원고접수 게시판에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박스가 안보일 경우는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현황상보기 설정 필요

원고문의 | **연구팀** (yeonkh315@hanmail.net) **정원홍 편집장** (prayer12@chol.com)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간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편집실